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현금 지원이 노숙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문화·관광 - 자링강 케이블카 재건설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사회·복지 - 유명 택시 앱을 이용한 베를린의 장애인 전용 택시

행재정·교육 - 파리지 공공장소에서 광고 제한
환경·안전 - 태양광 단지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시카고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현금 지원이 노숙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사회·복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립대학은 노숙자에게 현금 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함. 연구진은 노숙자 50명에게 7,500달러(약 744만 원)를 지급한 뒤 1년간 추적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 노숙자들이 지원받은 현금을 술과 마약 등으로 탕진했을 거라는 보통의 선입견을 깨고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에 사용했음이 드러남. 이 연구 프로젝트 결과는 캐나다 국립과학원 회보에 수록됨

배경

- 캐나다노숙자협력사무국은 매년 캐나다에서 15만~30만 명의 개인이 노숙을 경험한다고 추산함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노숙자서비스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 광역 밴쿠버의 노숙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2020년 3,634명에 비해 32% 늘어난 4,821명으로 집계됨
- 캐나다의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논의와 실험은 학계와 정부에서 줄곧 있었으며 특히 기본소득이 노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숙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논의가 활발함

지원 내용과 연구 방법

- 2018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개인 기부 및 지역 재단인 사회변화기구(Foundations for Social Change)의 지원을 받음
- 연구 프로젝트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심리학자인 지아잉 자오(Jiaying Zhao)에 의해 시작
- 지원 대상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2개 노숙자 촌에서 100여 명의 노숙자를 모집하고, 무작위로 현금 지원을 받는 그룹 50명과 받지 않는 대조군 50명으로 나누어 실험
- 연구진은 현금 지원 이후 3개월 주기로 지원 대상자들을 추적 조사
- 지출, 주거, 건강 및 사회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연구 결과

- 수혜자들은 대조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안정적인 주거로 이전하고, 1년 동안 안정적인 주거에서 55일 더 생활함
- 수혜자들은 식료품, 임대료, 수도 요금, 교통비 및 건강 복지에 지출 비중을 두었으며 대조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저축액을 나타냄
- 술, 마약 및 담배에 대한 지출을 평균 39% 줄임
- 수혜자들은 이 돈을 임대료, 의류, 식료품 및 필수품에 사용하고, 숙박업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99일 감소함
- 노숙자들이 '유혹 상품'에 돈을 낭비한다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다른 소비 양상을 나타냄
 - 밴쿠버의 쉼터 체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1박당 약 93달러(약 9만 3,000원)임을 고려할 때, 쉼터에서의 숙박 일수를 줄임으로써 수혜자 1인당 8,277달러(약 822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음
 - 이는 쉼터 체류 대비 777달러(약 77만 원)의 순 절감 효과를 얻은 것임
- 이 연구는 2023년 캐나다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발표됨

시사점과 한계

- 시사점
 - 현재 더딘 성과를 보이는 주택 공급, 숙소 지원 등에 편중된 연방 및 도시 노숙자 정책의 대안으로 노숙자 개개인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 현재 상원에 제출된 법안인 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S-233¹⁾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
 - 한편 병행한 대중의 노숙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시민 응답자 81%가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이 집을 가진 사람들보다 술, 마약, 담배 같은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유혹 상품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결과가 나옴. 또한 노숙자들이 한 달에 300달러(약 30만 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노숙자들은 실제 한 달에 약 100달러(약 10만 원)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1) 법안 S-233은 캐나다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으로, 보장된 생계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을 통해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음.
<https://nationalpost.com/news/canada/what-happens-when-you-give-50-homeless-people-7500-each-a-b-c-study-found-out>

○ 한계점

- 그러나 심각한 약물 남용이나 주류 남용, 정신 건강 증상이 있는 노숙인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2년 미만의 상대적 단기 노숙자로 제한하였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됨

자령강 케이블카 재건설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

충청시 / 문화·관광

충청시는 중국 도시 중 유일하게 창장강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음. 중국 유일의 케이블카라는 상징성을 지닌 창장강 케이블카는 충청의 독특한 지리 환경 및 생활공간을 조망할 수 있어 충청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 하나임. 현재 엄청난 관광객이 몰리고 있어 이러한 포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시는 과거에 철거했던 자령강 케이블카를 다시 건설, 충청시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

중국 도시 중 유일하게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충청시

- 중국 4대 직할시¹⁾이자 내륙 최대 도시인 충청시는 중국 도시에서 유일하게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창장강(長江) 케이블카는 중국 최대 하천인 창장강의 상공을 가로지르는데, 1986년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기공하여 이듬해에 완공
 - 전체 길이는 1,166m, 운행 속도는 6m/초, 운행 시간은 4분 30초, 최대 적재 인원은 65명
 -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운행
 - 창장강은 양쯔강(揚子江)의 중국식 명칭으로, 발원지인 칭하이(青海)성부터 11개 성·시를 가로질러 상하이(上海)시까지 총길이가 6,300km인 중국 1위의 하천
- 원래 충청시의 최초 케이블카는 창장강의 최대 지류로 충청에서 합류하는 자령강(嘉陵江)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자령강 케이블카이었음
 - 자령강 케이블카는 1980년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기공하여 1982년에 완공
 - 전체 길이는 740m, 운행 속도는 6.5m/초, 운행 시간은 3분, 최대 적재 인원은 46명이었음
 - 2011년에 장비 노후화와 이용 승객 감소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고, 2013년 말에 철거됨

1) 중국 4대 직할시는 베이징(北京)시, 상하이시, 톈진(天津)시, 충칭시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충칭시의 지리적 환경

- 창장강 케이블카는 산간이 많은 충칭시의 지리적 환경을 이용하여 시 중심인 위중(渝中)구와 강 건너편의 부심인 난안(南岸)구를 이어 주고, 자링강 케이블카는 위중구와 강 건너편의 부심인 장베이(江北)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음
- 충칭시는 전체 면적 중 75%가 산으로, 도시의 시 중심과 여러 부심이 모두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음
 -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충칭시의 별칭은 ‘산의 도시(山城)’임. 창장강 케이블카와 자링강 케이블카는 충칭의 태생적인 단점을 오히려 역이용한 것
- 충칭시는 1980년대에 예산상 문제로 여러 대교를 건설하지 못했기에, 먼저 케이블카를 놓아서 시민들의 출퇴근 시 이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
 - 예를 들어, 창장강 케이블카가 건설되기 이전 난안구 주민이 위중구의 중심가에 가려면 케이블카 역에서 4.5km가 떨어진 장강대교를 거쳐 돌아가야 해서 30~40분이 소요됐음

자링강 케이블카를 새로 건설하는 이유

- 2월 1일에 충칭시는 공공자원교역넷(公共資源交易網)을 통해 새로운 자링강 케이블카 건설방안(이하 ‘건설방안’)을 발표
 - 건설방안에 따르면, 국영기업인 충칭시객운케이블카유한공사는 총투자비 1억 8,000만 위안(약 333억 원)을 들여 전체 길이가 1,200m에 달하는 새로운 자링강 케이블카를 건설할 예정
 - 현재 시영지(市營地)로 해서 케이블카 터미널 자리를 확보했고, 올해 안에 모든 설계방안이 완성되면 바로 시공에 들어갈 예정
- 충칭시가 새로운 자링강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이유는 충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중 하나로 발돋움한 창장강 케이블카가 직면한 이용 승객의 포화 상황을 해소하고, 자링강 케이블카를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함
 - 창장강 케이블카는 2010년 직후부터 1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짐
 - 중국 도시 중 도심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케이블카라는 상징성과 충칭의 독특한 지리 환경 및 생활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
 - 2017년 일일 이용객이 1만 명을 넘자 케이블카의 관리와 보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승차비 대폭 인상

- 이전에 충칭 시민은 1.8위안(교통카드, 약 333원)~2위안(현금), 다른 지방 사람은 5위안(약 927원)이었음. 인상 이후 지방 구분 없이 편도 20위안(약 3,708원), 왕복 30위안(약 5,563원)으로 통일
- 출퇴근을 위해 창장강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충칭 시민의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충칭 시민 신분증과 관련 서류 제출 시 출퇴근 시간대에만 1.8위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패스 신설, 매달 신청을 받아 발급
- 승차비가 비싼데도 현재 관광객이 평일에는 1만 명~1만 5,000명, 주말에는 2만 명이나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자링강 케이블카 건설은 창장강 케이블카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충칭시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그림] 충칭시의 창장강 케이블카와 새로 건설하는 자링강 케이블카(빨간색 선) (출처: 바이두 이미지)

https://www.cqcb.com/yukuaibao/2024-02-01/5494735_pc.html

<https://m.gmw.cn/baijia/2022-10/26/1303178368.html>

<https://baike.baidu.com/item/长江索道/2964861>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유명 택시 앱을 이용한 베를린의 장애인 전용 택시

독일 베를린시 / 사회·복지

독일 베를린주의 노동·사회·평등·통합·다양성·반차별부(Die Senatsverwaltung für Arbeit, Soziales, Gleichstellung, Integration, Vielfalt und Antidiskriminierung)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인 프리나우(Freenow)사와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80대의 장애인 전용 차량을 추가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함

배경과 목적

- 베를린주는 배리어 프리 모빌리티(Barrier-free mobility)에 관한 많은 정책을 이미 실행하고 예산을 집중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예: 베를린의 배리어 프리 대중교통
 -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과 버스 및 페리에서 휠체어로 이동 가능(빈티지 버스가 있는 218번과 조정보트 중 페리 노선 F24 등 두 개 제외)
 - 트램이나 지하철은 앞쪽의 첫 번째 문 혹은 두 번째 문에 리프트나 접이식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이동이 가능
 - 버스, 트램, 지하철에서 필요하면 운전기사가 접이식 경사로를 이용해 휠체어가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협조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교통협회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에스코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베를린 여행객이 여행 전에 신청하면 에스코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호텔에서 픽업하여 목적지까지 동행하되, 범위는 베를린 시내 전역이며 시간대는 주중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임
- 예: 베를린의 배리어 프리 특별 여행 택시 서비스 비르모빌(WirMobil)
 - 장애인의 여가 시간이나 개인 여행을 위한 전용 서비스로 직장 및 훈련 센터로의 이동은 제공하지 않음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BER)을 오가는 여행도 포함하여 베를린 전역과 주 경계를 넘어 최대 5km까지 운행.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운행(새해 전야에는 12월 31일 새벽 5시부터 1월 1일 새벽 5시까지 운행).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예약 가능

- 한편 배리어 프리 대중교통이나 비르모빌 여가용 택시를 제외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택시는 그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이 개별 택시 회사에 문의하여 자리를 확인해야 하는 등 개선 여지가 많음

주요 내용

- 베를린 노동·사회·평등·통합·다양성·반차별부와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인 프리나우는 80대의 장애인용 택시 추가 계획을 발표
- 덕분에 장애인들은 개별 택시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예약 가능
 -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프리나우 앱에 목적지 입력 후 옵션에서 일반 택시와 배리어 프리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 한편 현재 프리나우사에 등록된 80대의 택시는 베를린에 등록된 장애인 콜택시의 절반 이상이며 추후 차량을 늘릴 예정
- 참고: 프리나우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
 - 2009년 독일 기업가들이 설립한 마이택시(mytaxi)사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기술 플랫폼과 결합하여 크게 성장. 2019년 BMW와 다임러 모빌리티(Daimler Mobility)사가 합작 투자. 현재 프리나우는 유럽에서 규모가 큰 렌터카 회사 중 하나로, 유럽 150여 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
 - 택시 외에도 카 셰어링,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옵션을 제공. 오늘날 유럽 전역 차량의 공유 서비스 전기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업
- "이동성은 포용, 참여, 사회 참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자기 결정에 의한 이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때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베를린 상원은 접근성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적 기준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제 프리나우 앱의 장애인 택시 지원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칸셀 키질테페(Cansel Kiziltepe), 노동·사회·평등·통합·다양성·반차별부 장관

결과와 계획

- 베를린주 정부는 장애인 택시와 특별 교통 서비스에 관한 예산을 꾸준히 배정해 왔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이어 갈 예정이며, 최근 서비스 사업의 이용 횟수 역시 높음
 - 2018년부터 장애인 전용 택시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전용 택시 개조 및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전환 또는 구매에 약 2,000만 유로를 지원
 - 2023년 12월 29일, 베를린주 정부는 장애인 포함 택시에 대한 자금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 지원 지침을 개정. 자금 지원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베를린주 정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120만 유로를 장애인 특별 교통 서비스인 '비르모빌'에 지원. 2024/2025년 예산에서 총 150만 유로의 예산이 장애인 택시에 배정.
 - 2022년에는 약 9,600건, 2023년에는 약 10만 2,000건 이용이 파악됨

<https://www.rbb24.de/panorama/beitrag/2024/01/berlin-barrierefreie-taxis-freenow-inklusion-krauthausen.html>

<https://www.berlin.de/aktuelles/8671842-958090-app-erleichtert-suche-nach-barrierefreie.html>

<https://www.berlin.de/sen/asgiva/presse/pressemitteilungen/2024/pressemitteilung.1406934.php>

<https://www.wirmobil.info/#haeufig-gestellte-fragen>

<https://www.zeit.de/news/2024-01/19/app-erleichtert-suche-nach-barrierefreiem-taxi>

파리시 공공장소에서 광고 제한

프랑스 파리시 / 행정·교육

파리시는 기후 문제와 관련해 공공장소에서 광고판을 2026년까지 제거할 계획을 발표, 파리 거리 상징 중의 하나인 모리스 광고 기둥이 사라질 예정. 유지와 제거를 위한 광고 선정은 시민 투표로 결정

○ 배경

- 현재 파리의 공공 거리에는 약 5,800개의 광고판 혹은 광고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
- 4×3 광고판과 디지털 스크린은 이미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해 옥외광고물이 많이 설치된 편은 아니지만 기후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 2026년에는 파리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상업광고가 없어질 예정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임기 말년인 2026년까지 3년 동안 점차 상업광고를 줄여 최종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상업광고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
- 기존 광고 계약 건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광고 시설물을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
 - 예를 들어 모리스 광고 기둥(Colonne Morris)은 제이씨데코(JCDecaux)와 8년 동안 유효한 계약을 2019년에 갱신했기 때문에 제한 정책이 발효된다고 해도 당장 제거가 불가능
- 약 8억 1,000만 유로의 광고 수익을 포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함
- 무조건 광고를 없애는 것이 아닌, 광고를 더 책임감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는 데 목적을 둠
- 이는 상업광고가 환경에 해를 끼치기 때문으로 환경단체들은 이와 같은 광고 제한 정책을 환영

○ 공공 공간 정리를 위한 모리스 광고 기둥 제한 정책

- 1868년 광고업자인 가브리엘 모리스(Gabriel Morris)의 이름을 딴 광고 및 홍보 기둥은 원통 모양의 진녹색 기둥으로 내부에 도로 청소 장비, 화장실, 공중전화 등이 설치된 역사적인 옥외광고 시설

- 이러한 광고 기둥은 예부터 오스트리아 빈, 스위스 제네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퀘벡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음
 - 모리스 광고 기둥은 왈라스(Wallace) 분수, 헥터 기마르(Hecteur Guimard)의 지하철 입구와 함께 파리 거리의 중요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임
 - 2006년 들리노에(Bertrand Delanoë) 당시 파리 시장이 공공 공간 정리를 위해 모리스 광고 기둥 수를 773개에서 550개로 줄임
 - 이때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장 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가 일부 광고 기둥을 보다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빌모트 기둥으로 대체하기도 함
 - 2019년 제이씨테크 광고회사는 이 모델들을 계승하되, 조금 더 날씬하고 여섯 마리의 사자 모리가 장식된 육각형 캐노피인 진녹색 기둥으로 디자인을 변경함
 - 야간 조명 등 현대적 설비가 추가로 설치됨
- 2023년 12월부터 파리 거리 광고판 야간 소등
- 2023년 12월부터 오후 11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파리 거리의 광고 조명을 끄도록 의무화함
 - 공공 서비스, 도로 안전 및 접근 허가 등의 정보 제공 표지판은 제외
 - 대중교통 서비스 시간에 따라 오후 11시 45분부터는 지하철역, RER 파리 교외선 역, 기차역 및 버스 정류장의 조명판도 소등
 - 일 드 프랑스 모빌리티에 파리 수도권 교통공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상업시설이나 사무실 등의 개인 건물 내 광고판도 11월부터 야간 소등이 의무화
- 시민 토론과 투표를 통해 유지해야 할 광고의 종류와 위치 선정
- 파리 시내 SUV 차량 운행 제한과 주차비 인상안을 진행할 때 파리 시민에게 투표로 의견을 물어보는 것처럼, 이번 공공 거리 상업광고 제거에 대해서도 주민 투표 예정
 - 키오스크, 버스 정류장 등의 기존 광고는 그대로 유지, 역사적 기념물 등 문화유산 관련 대형 광고 배너, 민간 건설 현장 광고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유지와 제거 대상 광고판의 종류를 선별하고 그 위치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투표 시행 계획

○ 시사점

- 역사적으로 광고판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모리스 기둥의 변천사를 통해 특히 파리 도시 공공 디자인의 시대별 쟁점을 엿볼 수 있음
- 거리의 수많은 간판으로 서울을 기억하는 외국인들을 볼 때,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비교해 볼 만한 사례
- 이번 정책은 막대한 광고 수익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파리의 의지를 보여 줌
- 시민 토론과 투표로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도 주목할 만함



[그림] 과거와 현재의 모리스 광고 기둥들과 현대화된 빌모트 기둥

(출처: <https://www.patrimoine-environnement.fr/550-colonnes-morris-vont-etre-changees-a-paris/>,
https://fr.wiktionary.org/wiki/colonne_Wilmotte)

<https://www.leparisien.fr/paris-75/paris-compte-bien-reduire-la-publicite-dans-lespace-public-mais-pas-sur-tous-les-supports-09-01-2024-Y2EQ2Y5JIBH4FF67PR3GYOB5ME.php>

https://actu.fr/ile-de-france/paris_75056/anne-hidalgo-veut-supprimer-la-publicite-dans-les-rues-de-paris-pourquoi-ca-sera-complique_60371917.html

<https://www.paris.fr/pages/enseignes-et-publicites-3514>

https://www.lemonde.fr/planete/article/2022/10/12/la-ville-de-paris-vote-l-extinction-de-la-publicite-lumineuse-la-nuit-a-partir-de-decembre_6145531_3244.html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태양광 단지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시카고

미국 시카고시 / 환경·안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에 동참하기 위해 202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기로 결정. 이를 위해 대규모 태양광 업체와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함

정책 배경: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 2021년 시카고시가 속한 일리노이주의 주지사 J. B. 프리츠키(J. B. Pritzker)는 일리노이주가 205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하겠다는 법안에 서명
- 2022년 미국 시카고시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 공공시설에는 공항, 도서관, 공공기관 입주 건물, 가로등 등이 포함됨
- 해당 발표의 의의는 ‘청정에너지’의 범주를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했다는 데 있음
 - 2010년 초기만 해도 시카고시의 에너지 공급 방침은 석탄을 제외하는 정도였기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음
 - 이 과정에서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전력이 사용되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청정에너지’의 정의가 명확해짐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 시카고시 및 시카고시가 포함된 일리노이주는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및 스위프트 커런트 에너지(Swift Current Energy)와 4억 2,000만 달러(약5,600억 원) 규모로 에너지 공급 계약 체결
- 태양광 발전 시설인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Double Black Diamond Solar Farm)’에서 5년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받을 계획
 - 해당 단지의 위치는 오랜 석탄 채굴 역사를 가진 곳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음



[그림] 더블 블랙 다이아몬드 태양 에너지 단지 (출처: Swift Current Energy 홈페이지)

- 약 600MW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됨. 시카고시는 그중 절반가량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
 - 시카고시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조달할 경우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태양광 프로젝트 확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 근거는 2021년 제정된 「기후와 공정한 일자리 법(Climates and Equitable Jobs Act)」
 - 이 법안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가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적 소수자 집단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함
 - 이런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는 흑인, 라틴계 등 소수자 집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고용 창출을 위해 태양 전지판 설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였음
- 시카고시는 이 태양광 단지를 통해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의 약 70%를 충당하고, 나머지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크레딧(REC)을 구매할 계획

- 재생에너지 크레딧(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은 공급 의무자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양에 한계가 있을 때 외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구매하게 될 크레딧들은 궁극적으로는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경제 활성화 계획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자금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가 확대됨으로써 대체될 계획

시사점

- 미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시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재생에너지 사용 방침은 파리, 도쿄 등 세계 유수 대도시의 에너지 전환 흐름과 일치하며, 2021년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도 예외가 아님
 -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활용 방침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을 아우르는 제반 경제 주체에게 저탄소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점
-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환경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슈, 특히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원과 결부시켰다는 사실은 탈탄소화(decarbonization) 과정에서 사라지고 생겨날 일자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

<https://energynews.us/2023/06/12/largest-solar-farm-in-illinois-will-help-chicagos-city-operations-meet-climate-goal/>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mayor/press_room/press_releases/2022/august/Purchase100PercentCleanRenewableEnergy2025.html

<https://www.power-technology.com/projects/double-black-diamond-solar-project-illinois-us/>

조민서 통신원, epeephany@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70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3월 1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